

한수진과 펠리카노

Soojin Han & Pellicano

2023. 5. 20.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Grieg

Peer Gynt Suites Nos. 1&2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제1번 & 제2번

바이올린 한수진

Soojin Han, Violin

객원지휘 줄리안 펠리카노

Julian Pellicano, Guest Conductor



THANK YOU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 사 장 문형주
부 이 사 장 안정근
이 사 송백규 이경혜 한수향
감 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2 - 2023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 스 터 즈 Circle	(주)EG
말 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 램 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 루 크 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 베 르 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 토 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호
쇼 팡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 차 르 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 이 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 욱 신갑순 심동욱 윤현숙 이근혁 이동규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한지민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



출발

지휘자 함신익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과 남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다짐한다. 이후,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경험을 통해 후세를 위한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준비를 거쳐 2014년 8월,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한다. 함신익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간다는 신념과 후원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목표

-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한다.
-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가 되고자 한다.

음악적 방향

-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5년까지 머물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다.
-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최상의 연주를 추구한다.
- * 해외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로 성장한다.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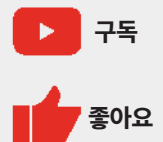
- *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hinik Hahm & Symphony S.O.N.G

T.(02)549-0046/0947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www.symphonysong.com

심포니 S.O.N.G
YOUTUBE





ARTISTIC DIRECTOR
SHINIK HAHM

함신익,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함신익의 인생여정은 평탄한 길보다는 험산준령을 오르내리는 등산가 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 흡사하다. 소년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익힌 그의 음악감성은 정규적인 피아노를 배우며 성장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그의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라며 축구와 음악과 자연에 빠지게 된다. 그가 대다수 연주자들과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데 소금같은 역할을 한다. 함신익의 보석같은 소년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사명의식의 발로가 된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함신익은 미국으로 간다.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운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된다.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 그리고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뺨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한다. 심지어 함신익은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20대에서 30대 초반 함신익은 미국에서 전문적인 학업을 부지런하게 한다. 그 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한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서 성장한다. 또한, 37세부터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서 23년간 재직한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 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또는 음악감독으로서 한국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활발하게 연주한 콘서트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극장 등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 또는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하였다.

그의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첩두, 항저우, 귀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깨끗한 자세로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그가 창단한 이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함신익이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박차고 뛰어나와 늘 새롭게 깨어나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산에 오르며 새로운 것을 찾는다.

오늘의
협연자

FEATURED ARTIST

바이올린
한수진

Violin
Soojin Han

“

비범한 테크닉과 다양한 표현력으로
진정성 있는 음악이 인상 깊은
바이올리니스트 ”

- 기돈 크레머

한수진은 유학 중인 부모를 따라 2세에 영국에 가서 5세에 피아노를 8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런던의 소수정예 영재 음악학교인 예후디 메뉴힌 학교에 입학하고 퍼셀 음악원, 옥스포드 대학, 런던 왕립음대,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국제 솔로연주자 과정을 거친 재원이다.

10세에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비발디 협주곡 협연, 12세에 위그모어 홀에서의 첫 독주 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연주하고 13세부터 영국의 각종 콩쿨과 음악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둔다.

15세에 매 5년마다 열리는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쿨에서 최초의 한국인으로, 콩쿨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2등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폴란드 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18세에 코리안 심포니와 정명훈의 지휘로 한국 무대에 데뷔하였고 그 연주는 폴란드 국영방송, 한국 KBS FM,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방송되었다.

안드라스 쉬프, 기돈 크레머, 유리 바쉬메트, 프란스 헬머슨 등과 실내악을 연주하였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심포니 송, 국립심포니 등과 협연하였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 다양한 무대에서 탁월한 음악적 역량을 선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 및 한-태도국 정상회의 자문위원,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수석 예술부감독, 사랑의 바이올린 홍보대사, 제주 프랑스영화제 홍보대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666년 산 Antonio Stradivarius로 연주하고 있다



SYMPHONY S.O.N.G Legato Interview

Q. 시벨리우스 바이올린협주곡의 매력은?

차가움 속에 뜨거움, 드라마티시즘 그리고 대자연을 연상하게 하는 스케일이 특별한 매력입니다.

Q. 한수진 씨에게 바이올린이 주는 어감은?

‘Silvery melody’ 은빛 멜로디!

Q. 콘서트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 한시간 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45분 전부터 연주할 곡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1시간 전에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밥 먹으면서 생각을 비우는 편이예요.

Q. 까다로운 지휘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오히려 까다로운 지휘자가 제 타이밍을 캐치하시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오케스트라와 그 부분들을 맞춰보게 하시더라고요.

Q. 연습이나 연주하지 않는 시간의 취미생활은?

전시회에서 영감 얻고 생각 정리, 어렸을 때 했던 발레 다시 시작했어요.

Q. 만약 한달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떠나고 싶은 여행지는?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 다 한 번씩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Q. 지난 브람스 협주곡을 심포니 송과 연주 한 후 느낀 점과 이 오케스트라만의 매력이 있다면?

열정적인 오케스트라와 할 때의 느끼는 기쁨은 특별한데 심포니송의 열기가 첫 리허설 때부터 느껴져 참 좋았습니다.

Q. 최근 읽은 책이나 영화 중 권하고 싶은 것은?

뒤늦게 Men in Black 추천드려요.

함신익의 제자 Series I



© Travis Campbell

지휘 줄리안 펠리카노

Conductor Julian Pellicano

객원 지휘를 맡는 함신익의 제자 줄리안 펠리카노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유연하고 역동적인 해석, 세밀한 지휘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캐나다인 지휘자이다. 그는 캐나다 로열 위니펙 발레단의 수석 지휘자이자 위니펙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이다. 그는 매 공연마다 정교한 음악성과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을 기치로 세워왔으며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위니펙 자유 언론사(Winnipeg Free Press)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휘자 줄리안 펠리카노는 시애틀 교향악단, 밴쿠버 교향악단, 캐나다 국립 교향악단, 발렌시아 교향악단과 에드먼튼 교향악단 등 북미의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하였다. 음악과 무용의 교차점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립 발레단 데뷔 연주와 올랜도 발레단 연주 및 왕립 위니펙 발레단과의 연주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펠리카노는 예일 음대에서 함신익의 문하생으로 지휘를 공부하였으며 피바디 음대와 스톡홀름 왕립 음악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였다. 어린시절, 펠리카노는 독학으로 타악기, 팀파니, 드럼 및 아코디언을 습득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또한 철학에도 관심이 깊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Be yourself, let the music lead you”

SYMPHONY S.O.N.G INTERVIEW

FEATURED ARTIST

Q. 오늘 연주가 한국 무대의 지휘 데뷔인가요?

그렇습니다.

Q. 음악 전공 시작을 타악기로 했는데 타악기 주자로서 지휘자로 성장하는 길에 도움이 된 것이 있나요?

타악기 주자들은 수많은 악기를 다룬다. 각 악기마다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며 각 악기로부터 나오는 음색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타악기 주자들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험적이면서 전통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음향을 늘 찾고 있다. 오케스트라도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악기가 표현하는 소리를 모아 하나의 무대에서 표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Q. 오늘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는 캐나다 위니펙 왕립 발레단에서 지휘자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그의 페르 권트 같은 극음악도 발레 연주와 흡사한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줄거리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왕립 음대에서 2년간 유학하며 공부한 경험은 이번 연주를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북쪽지방의 일출 과정, 여름, 그리고 겨울 등이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끔 한다.

Q. 당신이 예일 음대에서 합신의 교수와 지휘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그런 순간들은 너무나 많다. 합교수님은 4년간의 예일대 학원 학업 중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한 순간을 떠올린다면 선생님께서 예일 음대 오케스트라를 대곡으로 지휘하던 정기 연주회 전에 떨고 있던 나에게 “네가 오늘 밤 연주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하셨던 순간이 떠오른다.

Q. 지휘 학업 과정 중 합교수로부터 가장 반복적으로 들었던 교훈은 무엇인가요?

연주자는 하나의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이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이고 항상 창조적이며 감동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생각한다. 저는 이런 교훈을 합교수님의 레슨과 그분의 연주 및 연습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Q. 오늘날 지휘자로 성장하기까지 합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는 엄격한 지휘자 양성 과정을 통해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을 요구하는 합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합교수님은 지휘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리허설과 콘서트 경험을 내게 많이 주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셨다. 그러한 경험들은 내가 지휘자로서 경력을 쌓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Q. 심포니 송에 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래 전, 합교수님은 내게 심포니 송에 관한 그의 꿈과 계획을 나누었다. 그 후 그의 꿈이 실현되고 지금까지 10년간 강건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존재를 보면 저 또한 행복을 느낀다. 특별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주자들로 구성된 나의 스승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 하는 것은 진정 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Travis Campbell

함신의 오케스트라·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

SIBELIUS BY
PELLICANO AND SOOJIN HAN

한수진과
펠리카노

Jean Sibelius

장 시벨리우스

(1865~1957)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한수진 Soojin Han, Violin

- I. Allegro moderato
- II. Adagio di molto
- III. Allegro ma non troppo

INTERMISSION

Edvard Grieg

에드바르 그리그

(1843~1907)

Peer Gynt Suite No. 2, Op. 55

페르 귄트 모음곡 제2번

- I. The Abduction of the Bride. Ingrid's Lament 신부의 약탈과 잉그리드의 탄식
- II. Arabian Dance 아라비아의 춤
- III. Peer Gynt's Homecoming(Stormy Evening on the Sea) 페르귄트의 귀향
- IV. Solveig's Song 솔베이그의 노래

Peer Gynt Suite No. 1, Op. 46

페르 귄트 모음곡 제1번

- I. Morning Mood 아침의 기분
- II. The Death of Åse 오제의 죽음
- III. Anitra's Dance 아니트라 춤
- IV.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산속 마왕의 전당에서

5

MASTERS SERIES



글 박희정(지휘자, 작곡가)
Heejung Park(Conductor, Composer)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 47

장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호수와 백조의 나라 핀란드, 그리고 시벨리우스”

187,888개의 호수와 179,584의 섬이 있는 눈(snow)과 자작나무(Betulaceae)의 조용한 나라 핀란드.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야(白夜)”의 아름답고 화려한 여름밤에는 관심이 없고 짧은 낮과 흐린 기후로 인해 치명적인 어두움이 만연한 늦가을과 초겨울(11월~3월)에 민감하다.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시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렇듯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대조적으로 “어두움”이 그들의 주된 키워드인 탓인지 핀란드의 음악 역시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편인데 기법적 특징으로는 단조 화성 병진행(並進行, minor chord parallel)과 빈번한 저음 활용을 꼽을 수 있다. 핀란드 최고의 작곡가이자 국민적 영웅인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의 음악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쉽게 엿 볼 수 있는데 특히 시벨리우스는 화성의 ‘색채적 접근법’으로 유명하다. 이는 화성의 기능적 선택이 아닌 스케치된 그림에 색을 채워 넣는 듯 주어진 멜로디 아래에 감각적으로 배치를 함으로서 독특한 화성적 색채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의 7개의 교향곡(4번 교향곡은 제외)과 많은 관현악 소품과 특히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이러한 색채적 화성법이 두드러지게 연출된다. 1903년에 초고(草稿)가 완성되어 1905년에 개정(改正)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솔로의 기교적인 제스처에 집중하기보다 대규모 관현악단과 솔로 바이올린의 유기적인 관현악적 짜임새와 색채 및 질감을 통해 스칸디나비아반도 특유의 어두운 심상을 잘 표현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초고판은 작곡가 본인에 의한 지휘와 노바체크(Victor Nováček, 1873~1914)의 솔로 바이올린으로 190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초연되었으며 개정판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Georg Strauss, 1864~1949)의 지휘와 캐럴(Karel Halíř, 1859~1909)의 바이올린으로 1905년 베를린에서 연주되었다. 시벨리우스는 초고를 출판하지 않고 개정판만 출판하여 현재에 이른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연주는 대부분 개정판인데 시벨리우스 가문은 소수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게 초고판의 연주를 허락하기도 하였다.

1악장 Allegro moderato

빙하와 눈으로 만들어진 차갑고 조용한 호수. 소나타 형식의 제 1주제가 제시되는데 안개가 걷히면 현의 트레몰로가 어둡고 잔잔한 물결을 표현하고 솔로 바이올린은 그 수면 위로 고즈넉이 유영(游泳)하는 외로운 한 마리 백조를 그려낸다.



[솔로 바이올린에 의한 1악장 제 1주제]

핀란드 인에게 백조는 고귀한 영적 존재이자 죽음의 강(Tuonela)에서 사자(死者)를 지켜보는 음산한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와 유사하게 풍파 가운데 일어서는 핀란드인들의 정신적 투영체(投影體)이기도

하다. 시벨리우스의 5번 교향곡에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강한 빛을 향해 떼 지어 날갯짓하며 날아오르는 백조 떼의 긍정적이고 장엄한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바이올린 솔로에 의해 그려지는 이 협주곡에서의 백조는 핀란드의 슬프고 참담한 역사 속에서 역경 뒤에 늘 곳곳이 일어나 생을 이어가는 한 핀란드 여성의 고독하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비장함과 결의가 느껴지는 경과구를 지나면 솔로 바이올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애절한 제 2주제를 노래한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movement. It features three staves: L.R. Clar. in B., V.I.S., and I.2. Fag.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labeled '제 2주제 A', '제 2주제 B', and '대선율'. Red boxes and arrows highlight these sections, showing their relationship and how they are introduced by different instruments.

[2악장 제 2주제와 대선율]

특이한 점은 제 2주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바로 직전에 이 주제의 각각 A와 B 그리고 대선율이 다른 악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솔로가 본격적으로 제 2주제를 노래할 때는 화성적 긴장감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현악적 짜임새로 인해 새로움을 더한다.

뒤이은 종결부에서는 제 2주제의 대선율이 변주되어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친다. 끝없이 넓은 북부 동토(凍土)의 잔인함이 마치 시린 뼈에 사무치듯 표현되는데 다소 폭력적인 에너지 때문인지 뒤 이은 바이올린의 다소 엄격한 카덴차(cadenza)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 재현부를 거쳐 발전부없는 소나타 형식을 따른다.

2악장 Adagio di molto

1악장의 종결주제의 변주가 일종의 서주로서 클라리넷에 의해 고독하게 등장하면 솔로 바이올린은 1악장의 두 개의 본 주제를 묶어 아름다운 또 다른 노래로 완성시킨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econd movement. It features three staves: Hoboe, Clarinette in B., and V.I.S.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labeled '2악장 서주 동기' and '솔로 바이올린에 의한 2악장 주제'. The 'dolce' marking is present for the woodwinds.

[2악장 주제]

선율은 그의 여타 작품에서 쉽게 보이는 핀란드 민속 선율의 모습 보다는 브람스적인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그것과 많이 닮아있다. 사실 시벨리우스는 생전에 친 나치 성향을 보였으며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매우 동경하였다. 그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 스타일적 인용(引用)을 구사하였는데 특히 선율과 관현악적 짜임새에 있어서 다분히 독일 낭만주의 풍을 따른다. 서주 동기와 주제를 변주하여 화려한 중반부를 채워나가면 솔로 바이올린은 화려하게 분위기를 고조시켜 재현부로 인도하고 오케스트라에 의해 반복된 주제를 즉흥 연주 같은 화려한 장식들로 아름답게 꾸미며 악장을 마무리한다.

3악장 Allegro ma non tanto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의 열정적인 곡이다. 팀파니(Pauken)와 저음 현에 의해 경쾌한 말발굽 (horse galloping) 리듬이 소개되면 솔로 바이올린은 주저 없이 제 1주제의 흥겨운 춤을 춘다. 동시대 음악학자 도널드 토비(Donald Francis Tovey, 1875~1940) 곡의 초연 시 이 악장을 두고 핀란드 북극곰의 폴로네이즈(Polonaise)라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다.

Pauken in D, B.

energico
poco
Violine Solo.

[3악장 제 1주제]

제 2주제는 2악장의 중반부 주제와 그 성격이 닮아 있는데 선율은 오케스트라의 합주 유니슨으로 군무(群舞)를 이룬다. 투티 이후 솔로 바이올린이 왈츠의 모습으로 주제를 반복한다.

[3악장 제 2주제]

재현부를 거쳐 코다로 이르는 내내 시종일관 솔로의 화려한 춤이 매력적이다. 코다는 비바람 몰아치는 발트 해를 가로지르는 출렁임으로 역동적이다.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A lonely swan on a lake”

Finland is such a calm and peaceful country known for snow and birch trees, where there are 187,888 lakes and 179,584 islands. Actually Finns show their bigger concerns for so-called serious “darkness” during winter period, especially from November to March, rather than on beautiful “white night” of the summer we are interested in. They are afraid of this period of time when there is almost no light. Contrast to Finnish wonderful and clean nature, “darkness” has been their cultural keyword for life, and that is why Finnish music sounds very dark in a way. Musical techniques for this are as of using frequent minor chord progression and low register sound. Jean Sibelius (1865-1957), the greatest Finnish composer and national hero wrote many works in which this musical darkness are frequently observed. What’s well-known of Sibelius’ compositional technique is “coloristic harmony” method i.e., chords are to be chosen not according to its functions but based on composer’s paining intuition and to be positioned supporting the melody as if coloring a sketched drawing on a paper, which eventually creates very unique musical color. This is remarkably found in his 7 symphonies (except for the fourth symphony), other orchestral works and especially in his only violin concerto which was written in 1904, revised in 1905. It is symphonic in scope, with the solo violin and all sections of the orchestra being equal voices. An extended cadenza for the soloist takes on the role of the development section in the first movement. In the revision, he focuses more on musical structure and orchestral texture rather than solo violin’s virtuosic techniques.

1st MVT. Allegro moderato

On a cold and tranquil lake of glacier and snow. When a mist lets up, like a lonely swan (solo violin) swims slowly over gentle waves, the first theme appears over string's dark tremolo. To Finns a swan is regarded as a noble spiritual being or as a dismal existence on death river (Tuonela) watching over the dead. Contrast to positivity of a group of swans' soaring with strong wing movement departing from a lake upward to the cloudy sky where strong sunlight comes from the between of the clouds, a swan represented by a solo violin seems to depict a woman survived from miserable history of Finland. Transition section sounds very resolute and leads to the second theme the solo violin lachrymously but beautifully plays. In the following closing section, after a severe blizzard and cruelty of a wide northern iced land cut right to the bone, a strict cadenza feels even warmer.

2nd MVT. Adagio di molto

When a variation of the closing theme from the first movement is solitarily introduced by the clarinets, solo violin completes another lyrical song out of two themes from the first movement. The melody resembles Brahms rather than typical Finnish or northern European folk tune frequently quoted in his other works. Actually Sibelius was politically pro-Nazism and especially a great admirer of German romantic music so he often used its stylistic features in his various compositions. Solo violin excites the mood and leads the orchestra to the recapitulation. Then the main theme restated by the orchestra is being decorated by the solo's improvised-like gestures.

3rd MVT. Allegro ma non tanto

This movement follows free Rondo form in Polonaise style. As timpani and the low strings introduce cheerful galloping rhythm, solo violin does not hesitate to dance a pleasant dance. Orchestra states the next theme in unison like a group dance, resembling the middle part theme of the second movement. A brief orchestral tutti comes before the violin leads things to the finish with a D major scale up, returning down in flatted super-tonic (then repeated). A flourish of ascending slur-separate sixteenth notes, punctuated by a resolute D from the violin and orchestra concludes the concerto.

Edvard Grieg: Peer Gynt Suite No. 1, Op. 46 & No. 2, Op. 55

에드바르 그리그: 페르 귄트 모음곡 제1, 2번

1867년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Henrik Johan Ibsen, 1828~1906)은 노르웨이 구드브란스달(Gudbrandsdal) 지방의 구전설화(口傳 說話)를 바탕으로 페르 귄트(Peer Gynt, "Peer"는 Peter 즉 베드로의 스칸디나비아식 이름이다) 레제 드라마(Lesedrama, 상연보다는 독자에게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희곡)를 쓴다. 철없는 젊은이 Peer가 부와 쾌락을 쫓아 사랑하는 홀어머니 오제(Åses)와 지고지순한 아내 솔베이그(Solveigs)를 떠나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겪게 되는 내용이다. 유부녀 잉그리드(Ingrid)를 납치하여 탐하고 마왕의 딸과 정분이 났다가 트롤(Trolls) 요정들의 공격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예언자 행세로 사기 행각을 벌여 큰돈을 벌여 아라비아 추장의 딸 아니트라(Anitra)와 방탕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금광을 발견해 부자가 된다. 노년에는 전재산을 갖고 노르웨이로 귀국하다가 큰 풍량을 만나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거지꼴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평생을 기다리다 백발이 된 그의 아내가 그를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주고 페르 귄트는 숨을 거둔다.

1874년 입센은 페르 귄트 희극을 무대에 올릴 뜻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Edvard Hagerup Grieg, 1843~1907)에게 음악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리그는 입센의 작품이 꽤 난해한데다가 자신의 작품(作風)이 소품 중심의 취향이며, 극적 스케일이 큰 무대 작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거절하였지만 그가 평소 존경하던 입센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작곡에 착수하여 2년 후 1875년 곡을 완성한다. 원작품(Op. 23)은 부수음악(Incidental Music, 연극의 장면 간의 배경음악)의 형태로 27개의 곡(약 9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876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 왕립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되었다. 그리그는 이 중 1888년과 189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악 부분과 대사를 제한 각 4개의 곡으로 콘서트 모음곡 1번과 2번을 편찬한다.

모음곡 제 1번

1. 아침의 기분 (Morgenstem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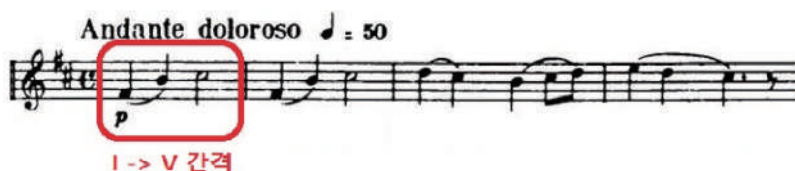
4막의 전주곡으로 페르 귄트가 모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맞이한 아침의 정경을 그린 곡이다. Dominant(V)음과 Tonic(I)음을 느린 6/8 박절 내에서 반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음형이 평온한 가운데 넘실거리며 출렁이는 파도를 표현한다. 주제는 점차 다이내믹을 더해 마침내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의 뜨거움을 그리기도 하고 구름에 흠뻑 젖는 갈매기와 바다 새의 울음소리를 모방한다. 그리고 수평면에 반짝이는 아침햇살의 아기자기함을 노래한다. V-의 하행 5도 음형 간격의 주제 동기는 곡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아침의 기분 주제]

2. 오제의 죽음 (Åses død)

3막에서 페르 귄트의 어머니 오제가 죽는 장면의 부수 음악이다. 오제는 산에서 막 돌아온 페르 귄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부지없이 방탕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그를 똑닮은 아들 페르 귄트로 인해 고독하고 가난하며 쓸쓸했던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임종을 맞는다. 어둡고 비통한 감정이 주제 동기의 반복 가운데 약음기(mute) 단 현악기에 의해 울려 퍼진다. I-V의 상행 5도 음정 진행이 주제의 주를 이룬다.



[오제의 죽음 주제]

3. 아니트라 춤 (Anitras dans)

4막에서 아라비아 추장의 딸 아니트라 무곡으로 현악기와 트라이앵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스케르초 풍에서 트리오를 제한 듯한 구조이다. 3박 반주 위의 관능적인 멜로디는 꽤 직관적인 영감에 의해 작곡되었다.

세 개의 동기로 구성된 주제

중반부 주제

[세 개의 동기로 구성된 아니트라 춤의 주제 및 중반부 주제]

4. 산 마왕의 궁전에서 (I Dovregubbens hall)

2막에서 페르 권트는 산 마왕의 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유혹하고자 마왕의 궁전에 들어간다. 요정들과 괴물들의 기괴한 모습을 음악적으로 잘 묘사하였는데 이 둘의 관계를 눈치 챈 마왕이 그를 사위로 삼아버리려 하고 이에 놀란 페르 권트가 궁정에서 도망쳐 나오자 괴물 트롤이 그를 뒤쫓는다. 숨 막히는 추격 중 멀리 마을에서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괴물들이 혼비백산한다. 그리그는 이 곡을 두고 “소똥 냄새가 나는, 너무도 노르웨이적인 곡”이라고 평가했다.

Violoncelli
pizz.
p

I -> V 음형

[I->V 상행 5도 음형으로 구성된 트롤의 주제]

모음곡 제 2번

1. 신부의 약탈과 잉그리드의 탄식 (Bruderovet. Ingrid's klage)

2막의 전주곡으로 페르 권트가 남의 신부 잉그리드를 납치해 산속으로 들어가 탐한다(약탈의 주제).

Allegro furioso.

[약탈의 주제]

3/4박자의 비통한 슬픈 노래(잉그리드의 탄식)가 뒤따르고 다시 약탈의 주제가 나온다. 페르 권트는 잉그리드에게 곧 싫증을 느껴 그녀를 버리고 산중을 방황하다가 푸른 옷의 아가씨(마왕의 딸)를 만나게 된다.



[탄식의 주제]

2. 아라비아의 춤 (Arabisk dans)

소녀들의 춤 동기 A



동기 B



[두개의 동기로 구성된 소녀들의 춤 주제]

4막에서 아니트라라 춤 바로 직전 아라비아 추장 앞에서 추는 소녀들의 무곡이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서 매혹적인 선율이 변형된 아라비안 음계(동기 B) 위에 펼쳐진다. 페르 권트는 자신이 예언자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보이며 춤을 추고 소녀들은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플루트와 탬버린이여 기쁨 소리를 외쳐라”라며 춤을 춘다. 중반부는 아니트라라 춤의 주제(앞서 독립적인 아니트라 무곡과는 별개의 주제임)로 이루어져있다.



[아니트라라 주제]

원곡에서는 소녀들의 춤은 2부 합창으로, 아니트라라는 솔로는 독창 성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페르 권트의 귀향, 폭풍이 있는 해안의 저녁 (Peer Gynts hjemfart (Stormfull aften på havet))

5막에 등장하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해안의 저녁 모습이다. 미국에서 큰돈을 벌어서 금의환향(錦衣還鄉)을 기대하던 페르 권트는 거대한 폭풍우를 맞게 되고 결국 전 재산을 잃어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버린다.

[폭풍의 주제 (동기 A, B)]

성난 파도와 거센 비바람의 풍랑을 잘 묘사하였다. 베토벤 전원 교향곡의 4악장 폭풍에서의 주제 동기가 이 악장 중반부에서 인용되었다.



[폭풍의 주제 동기 C]

4. 솔베이그의 노래 (Solveigs sang)

소위 노르웨이 판 망부석 가요의 일종으로 선율은 노르웨이 민요에서 차용되었는데, 철딱서니 없는 남편 페르 권트를 그리워하는 지고지순한 아내 솔베이그의 심정을 잘 드러낸 노래이다. 무일푼 거지가 되어 귀향한 페르 권트. 백발이 된 늙은 아내 솔베이그는 그를 받아들여 무릎에 누인 후 노래를 불러 준다. 노쇠한 페르 권트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게 되고 이어 그녀도 이 노래를 부르며 숨을 거둔다.



[솔베이그의 노래 주제]

겨울이 무난히 지나가고,
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봄이 가버리겠죠
여름도 보일 듯하다 지나가고,
한해가 가버리는군요.
한 해가 지나가 버리겠죠.
하지만 난 이것만은 확신해요.
당신이 다시 돌아오리란 걸.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내가 약속드린 대로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날 발견하실 거예요.

Edvard Grieg

Peer Gynt Suite No. 1, Op. 46 & No. 2, Op. 55

Peer Gynt, Op. 23, is the incidental music to Norwegian play writer Henrik Ibsen (1858~1906)'s 1867 play of the same name, written by the Norwegian composer and pianist Edvard Grieg (1843~1907) in 1875. The piece was written to convert Ibsen's play into a musical phenomenon, which it rightfully did. It was in the year 1867, in Italy, when Ibsen wrote this allegorical play, comprised of five separate acts. A story about a Norwegian anti-hero, a Lesedrama that was originally not meant for stage performance.

Ibsen, eventually, changed his mind and in 1874, got in touch with his close friend, Edvard Grieg to persuade the latter to compose music for the play. Grieg completed the composition by the autumn of 1875, despite finding the play too complicated at the beginning. The stage premiere happened in 1876 at the Mollergaden Theatre in Oslo and it was conducted by Grieg himself.

In the year of 1885, Peer Gynt resurfaced in Copenhagen. It was then that Grieg decided to modify and improve the music in his vision. New pieces were added for both this and the subsequent 1902 revival of the play. Considering the length of the drama and the accompanying incidental music, full-scale productions are a rarity, though it was among the most popular pieces of the early 20th century. Grieg created two suites from his Peer Gynt music.

Suite No. 1 begins with the evocative "Morning Mood" that opens Act IV of the play, set in North Africa. "I imagine the sun breaking through the clouds at the first forte," Grieg wrote. "Åse's Death" depicts not Peer's wild fantasies at his mother's death bed, but rather her desolate anticipation of death in quietly crooning strings, music that begins and ends Act III. "Anitra's Dance" – "a soft little dance which I am very anxious should sound delicate and beautiful" – is the lilting seduction of Peer, posing as a prophet in the Arab world, by a Bedouin chieftain's daughter. It ends with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from Act II, in which Peer encounters the hostile court of the troll king in a dream fantasy.

Grieg's Second Suite opens with violent music from the beginning of Act II, in the aftermath of the broken wedding, framing Ingrid's lament. The "Arabian Dance" is from the middle of Act IV, in the Bedouin camp just before "Anitra's Dance." The Prelude to Act V evokes a tempest at sea, as Peer is shipwrecked on his return to Norway. Now a grumpy old man, Peer reflects on the roads not taken in a life he now believes mis-spent. Peer hears the voice of his dead mother and trades questions with Death; despairing, he makes his way to the hut of Solveig, the woman he had loved and left at various points in the preceding acts. She comforts him with a cradle song, though the music that closes the Suite No. 2 is her radiant song from the end of Act IV, a foreshadowing of her redeeming devotion to him.

**단 원
인터뷰****첼로
오재경****Jaekyung Oh**
Cello

서울대학교 졸업
맨하탄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경기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NYCV Competition 1st prize,
Lilian Fuchs Competiton 1st prize,
심포니 송 첼로 수석,



Q. 심포니 송 연습실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감정을 말씀해주세요.

연습실에 들어오면서 오늘은 어떤 음악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해 느껴지는 기대감, 좋은 리허설을 진행하고 싶기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긴장,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러한 감정들이 리허설이 진행되면서 음악 속에 녹아들고 연주가 끝나고 나면 모든 감정들이 전부 해소되는 것 같아요.

Q. 다른 오케스트라와 심포니 송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심포니 송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함신의 지휘자와 연습 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요?

리허설 시작 전, 지휘자 보면대에 놓여 있는 선생님의 스코어를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묻어나있는 스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처럼 성장하고 있는 음악가들에게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선배 음악가로서의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을 것을 매번 강조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음악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리허설 이전에 음악 그 자체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코칭을 진행하시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코칭을 받기 위해 제 나름대로 스코어와 첼로 파트보를 공부하며 준비해 갔지만, 음표를 읽느라 놓치고 있었던 음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짚어내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심포니 송의 지난 연주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마스터즈 시리즈가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때의 전율이 남아있습니다. 후반에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5번을 연주했는데요, 이전에 여러 번 연주했던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이상하게 제 마음을 정말 'touching'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2악장의 선율은 '아름답게' 그리고 반복되는

리듬은 '정확하고 단단하게'의 느낌으로 연주해왔는데 함신의 선생님과 함께 연주한 2악장은 차이코프스키가 인생과 음악에 가지고 있던 고민과 아픔이 통증을 되어 고스란히 한 구절마다 녹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맛에 음악하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Q.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계절이 좋으신 이유는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따뜻한 라테가 맛있어서는 계절이라고 하던데 정말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겨울의 차분하고 시린 공기가 주는 느낌이 좋아요.

Q. 외국 생활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인데,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 아래를 다니는 배 안의 홀에서 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을 뒤로하고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연주했어요. 강풍에 흔들리는 배 때문에 뱃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연주자의 숙명인가 싶었습니다.





심포니 송의 프로들

예 술 감 독	함신익
바 이 올 린	송지원 오하은 김희영 문수빈 박수미 박 현 사윤빈 손지오 윤수정 이서영 이지원 이희민 장다연 전빛나 최규리 최수영 홍예슬
비 올 라	임선영 장서윤 안예림 이선아 정하림 조혜민
첼 로	오재경 김소을 이한호 이해인 정혜솔 조하영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명지 강선률 박소연 윤영진 임윤선
플룻	김소희 김지원 하종수
오보에	양희재 김동현
클라리넷	강석원 김민찬
바순	이준철 고수경
호른	이석준 변정수 박세연 안지환 이석재
트럼펫	이혜진 박지원
트롬본	김호준 이민환
베이스 트롬본	윤석진
튜바	이학준
팀파니	우라카와 쇼마
타악기	김슬민 손혁진 유요한
하프	추민경
크리에이티브 팀	고희진 이성준 정다운 정연희 한지민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나그네소리와 함께하는
함신익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The Emperor"

Beethoven
Symphony No. 7
in A major



함신익
지휘

임주희
피아노

UPCOMING CONCERT

2023. 6. 2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 549 0046 | 02 549 0947 예매 롯데콘서트홀 YES24.COM공연

후원 NOROO EG 주식회사 이지 하나은행 SAMSUNG FST S&B DSK TSE GOLFZON 코스모스악기 GFS 최광교역(주)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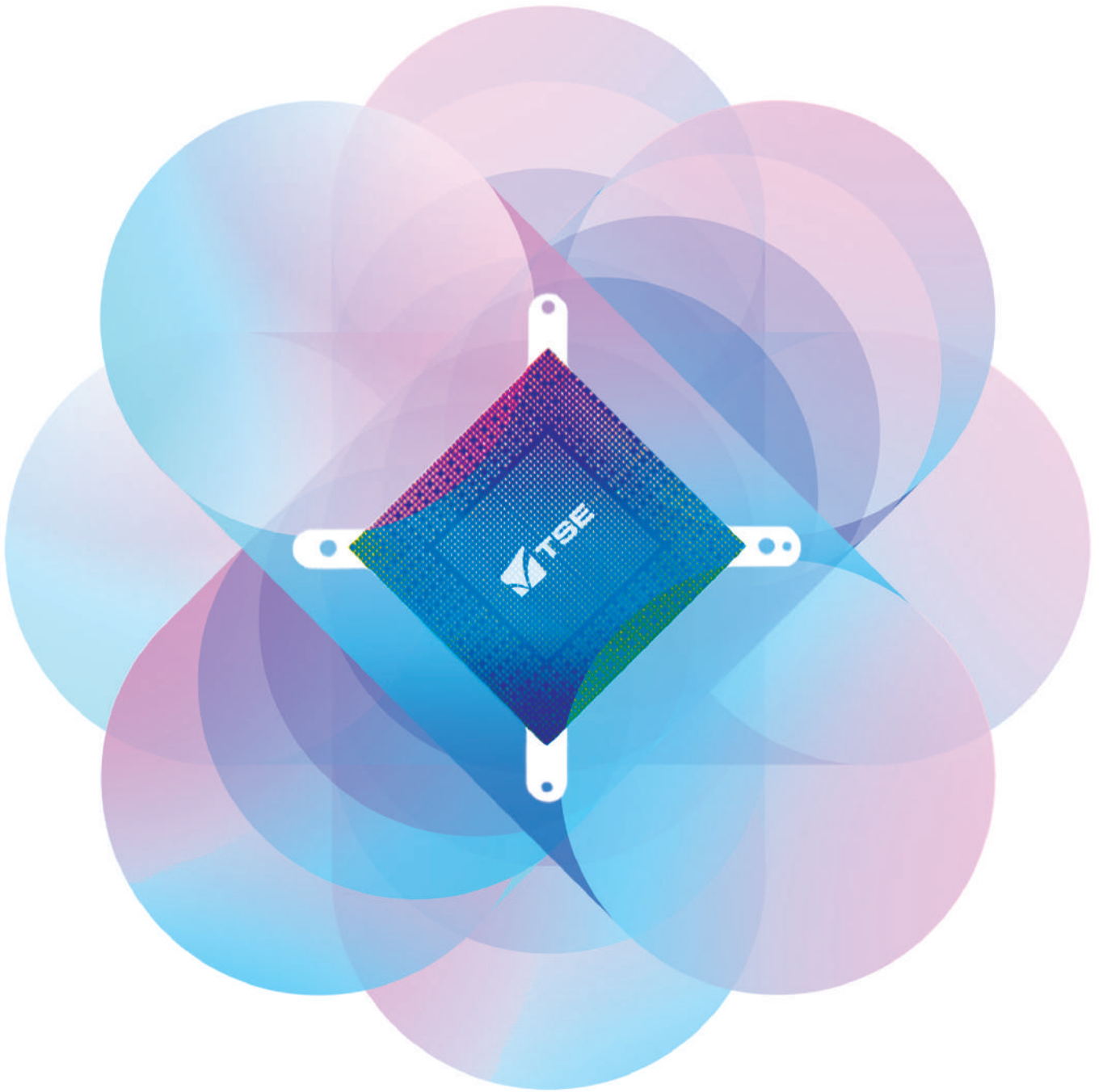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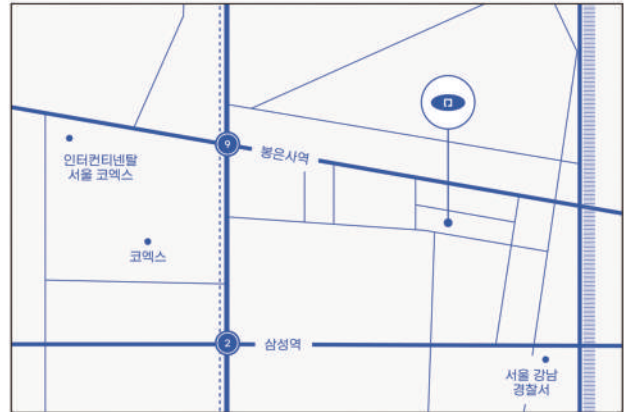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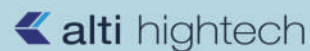
FA부문 - FPD&SOLAR&의료장비, Linear System, Laser System, Probe
BIO부문 -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술이 힘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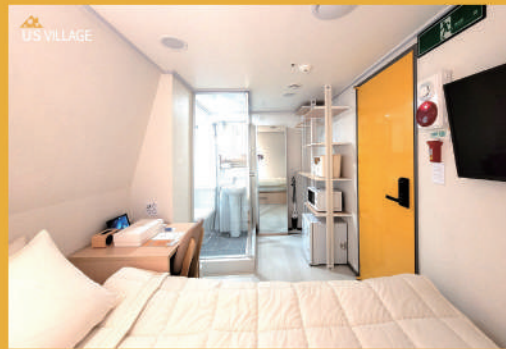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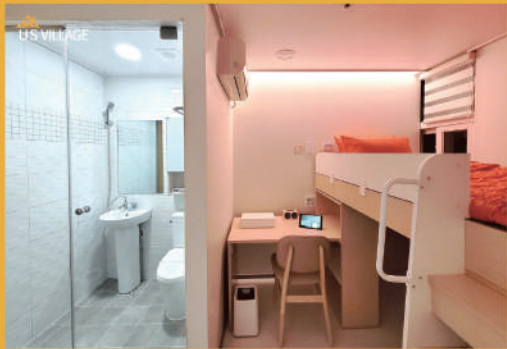
주식회사 EG
www.egcorp.co.kr



즐기고, 배우고, 성장하고

USVILLAGE

www.usvillage.co.kr



문의전화. 1544-7740

SERIES I
바람과 실
when strings
meet winds

 2023. 07. 06.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홀

A. Messenger

Solo de concours

A. Moz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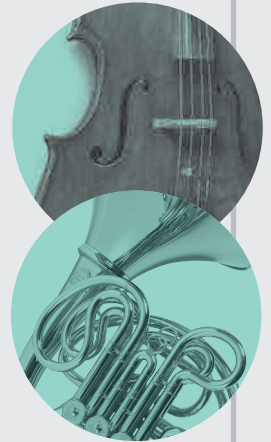
Flute Quartet in D Major K.285

C. Saint-Saëns

 Tarantelle for flute, clarinet
and piano, Op. 6

P.I.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 70


SERIES II
Deqing Wen & Beethoven

 2023. 07. 13. Thu.
7:30pm


 ILSHIN HALL
일신홀

Deqing Wen

The Trill of Steppe for Piano Trio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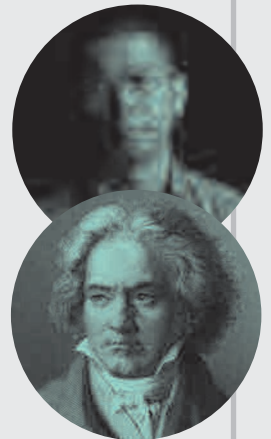
Ink Splashing for String Quartet (2017)

 Love Song and River Chant
for Piano Solo (2006)

박희정

String Quartet No.1 (세계초연)

L.V. Beethoven

 Piano Trio No. 4 in B♭ major,
Op.11 'Gassenhauer'

SERIES III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초청 콘서트

 2023. 08. 18. Fri.
7:30pm


 ILSHIN HALL
일신홀

L. Spohr

 Fantasy and Variations on
a Theme by Danzi, Op.81

J. Françaix

 Quintet for Clarinet
and String Quartet

J. Brahms

 Clarinet Quintet in
B minor, Op.115


합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

합신의 브람스

2023 BRAHMS FESTIVAL 2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브람스: 교향곡 제3번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브람스: 교향곡 제1번

2023. 09. 09.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합신의 Shinik Hahm, Conductor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합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I

위대한 차이코프스키와 슈베르트

THE GREAT TCHAIKOVSKI & SCHUBERT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Schubert: Symphony No. 9 in C major, D. 944 'The Great'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그레이트'

2023. 10. 1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객원지휘 **대럴 앙**
Darrell Ang, Guest Conductor



바이올린 **송지원**
Ji-Won Song, Violin

합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IX

이정현의 첼로 퍼레이드 '드보르자크와 굴다'

DVOŘÁK & GULDA BY CELLIST CHRISTINE J. LEE

Dvořák: Slavonic Dances No. 1-8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1-8번

Dvořák: 'Silent Wood'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고요한 숲' 외

Gulda: Concerto for Cello and Wind Orchestra

굴다: 첼로와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2023. 11. 18.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합신의 Shinik Hahm, Conductor
첼로 이정현 Christine J. Lee, Cello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합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X

2023 송년음악회 '합창'

BEETHOVEN'S 'CHORAL' SYMPHONY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합창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순영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바리톤 김정래

2023. 12. 14. Thu. 7:3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합신의 Shinik Hahm, Conductor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40매, S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5매, S석 25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 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 램 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 루 크 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 베 르 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베 토 벤	5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추가구매테켓 20%할인	
쇼 팡	3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추가구매테켓 20%할인	
모 차 르 트	1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4회 - S석 2매 증정 추가구매테켓 20%할인	
하 이 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 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적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